

A photograph of two young girls walking towards the camera on a dirt path. They are wearing traditional, colorful patterned dresses over black long-sleeved shirts. Each girl is carrying a large, dense bunch of bright yellow flowers behind her back. The background shows a rural landscape with trees and a fence.

2022

VIETNAM

이대로 M, 최사라M



# 나를 따르라

(Hay theo Ta)

누가복음 9:57-62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 2019.10.1~2020.9.30 기간 보고된 기독교 박해 통계

- ▶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크리스천 수 : 4,761명
- ▶ 교회 및 기독교 관련 건물 공격 : 4,488건
- ▶ 신앙 때문에 구금, 투옥된 크리스천 수 : 2,813명
- ▶ 신앙 때문에 기소되어 형을 받은 크리스천 수 : 1,464 명
- ▶ 크리스천들을 강간 또는 성희롱 : 3,005건 이상(전체 통계 없음)
- ▶ 크리스천들을 비기독교인과 강제 결혼시킴: 1,462건 이상(전체 통계 없음)
- ▶ 크리스천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폭행 및 살인협박 포함) : 20,718건 이상(전체 통계 없음)
- ▶ 크리스천들의 집, 사업장, 재산을 공격, 몰수, 파괴 : 8,666건 이상(전체 통계 없음)
- ▶ 신앙관련 이유로 집을 떠나야한 크리스천 수(국내난민) : 129,777명 이상(전체 통계 없음)
- ▶ 신앙관련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한 크리스천 수(국외난민) : 14,885명 이상(전체 통계 없음)

# World Watch List 2021 Top 50 - 기독교박해지수 상위 50개국

박해 순위	국가명	개인생활 박해지수	가정생활 박해지수	지역생활 박해지수	국가생활 박해지수	교회생활 박해지수	폭력지수	토탈 박해지수
		6개 영역별 최대치 16.7						
1	북한	16.7	16.7	16.7	16.7	16.7	11.1	94
2	아프가니스탄	16.7	16.7	16.7	16.7	16.7	10.2	94
3	소말리아	16.5	16.7	16.6	16.6	16.3	9.8	92
4	리비아	15.6	15.4	15.9	16.3	16.3	12.4	92
5	파키스탄	13.9	14.2	15.1	14.9	13.5	16.7	88
6	에리트레아	14.6	14.9	15.9	15.9	15.4	11.1	88
7	예멘	16.6	16.6	16.5	16.7	16.7	3.9	87
8	이란	14.5	14.5	13.9	15.7	16.5	10.6	86
9	나이지리아	13.3	13.2	13.9	14.1	14.1	16.7	85
10	인도	13.0	12.9	13.5	14.9	13.7	15.4	83
11	이라크	13.6	14.6	14.2	14.8	13.8	11.5	82
12	시리아	13.3	13.9	13.5	14.5	14.0	12.0	81
13	수단	13.4	13.4	13.7	13.6	15.7	9.1	79
14	사우디아라비아	15.1	14.1	14.4	15.8	16.6	2.2	78
15	몰디브	15.4	15.5	13.9	15.8	16.6	0.4	77
16	이집트	12.5	13.2	11.5	12.7	11.0	14.1	75
17	중국	12.6	9.7	12.0	13.2	15.4	11.1	74
18	미얀마	11.9	12.0	13.1	12.9	12.3	11.9	74
19	베트남	12.1	8.8	12.7	14.0	14.5	10.0	72
20	모리타니아	14.3	14.0	13.5	14.1	13.6	1.9	71
21	우즈베키스탄	15.1	12.9	14.1	12.2	15.7	1.3	71
22	라오스	12.1	10.2	13.6	13.5	14.3	6.9	71
23	투르크메니스탄	14.5	11.3	13.8	13.3	15.7	1.5	70
24	알제리	13.9	13.9	11.5	13.1	13.4	3.9	70
25	터키	12.5	11.5	10.8	13.3	11.6	9.3	69



24	르세니	13.9	13.9	11.5	13.1	13.4	3.9	70
25	터키	12.5	11.5	10.8	13.3	11.6	9.3	69
26	튀니지	12.0	13.1	10.4	11.5	13.2	7.4	67
27	모로코	12.6	13.5	11.2	12.4	14.1	3.7	67
28	말리	9.4	8.2	12.7	10.3	11.5	15.4	67
29	카타르	14.0	13.9	10.8	13.1	14.1	1.5	67
30	콜롬비아	11.4	8.8	12.4	11.0	9.7	13.9	67
31	방글라데시	11.5	10.3	13.0	11.3	10.1	10.6	67
32	부르키나파소	9.4	9.7	12.0	9.4	11.8	14.3	67
33	타지키스탄	14.0	12.3	11.9	12.5	13.2	2.2	66
34	네팔	12.4	9.7	9.9	13.0	12.3	8.5	66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0	8.6	13.1	9.6	9.9	15.6	66
36	에티오피아	9.9	8.5	10.7	10.3	10.8	14.4	65
37	멕시코	10.3	8.1	12.4	10.7	10.3	12.6	64
38	요르단	13.1	13.9	11.4	11.6	12.4	2.0	64
39	부르나이	13.9	14.6	10.7	10.9	13.5	0.7	64
40	콩고	8.0	7.9	11.2	9.4	11.6	16.1	64
41	카자흐스탄	13.2	11.5	11.0	12.5	13.4	2.4	64
42	카메룬	8.8	7.6	12.6	7.0	12.3	15.7	64
43	부탄	13.1	12.1	11.9	12.7	13.8	0.0	64
44	오만	13.2	13.5	10.3	12.5	13.0	0.9	63
45	모잠비크	9.3	7.6	11.3	7.9	11.1	16.1	63
46	말레이시아	12.1	14.3	12.9	11.5	10.0	2.4	63
47	인도네시아	11.5	11.4	12.4	10.7	9.3	7.8	63
48	쿠웨이트	13.2	13.5	9.9	12.2	13.2	1.1	63
49	케냐	11.7	9.2	10.5	8.0	10.3	12.8	62
50	코모로	12.5	11.1	11.4	11.3	14.2	1.9	62

# 1.교회개척훈련학교

- 베트남 북부지역에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훈련학교임.
- 1기부터 5기까지 61명이 졸업을 했고 현재 30개 교회가 개척 됨.
-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년
- 8명의 교수(6명:한국, 2명:베트남)
- 2013년 9월부터 하노이국제신학교로 전환











## 2.하노이 국제 신학교(HIS)

- 성경중심의 신학을 바탕으로 건강한 교회 개척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목회자 및 전도자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지도자, 세계 열방을 품은 열정을 가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
- 2013년 9월 시작 ~ 현재
- 10명의 교수(8명:한국, 2명:베트남)
- 현재까지 49명 졸업 (1회 9명, 2회 5명, 3회 13명, 4회 3명, 5회 5명, 6회 9명, 7회 5명)
- 현재 재학생 22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음 (3학년 10명은 목회 실습중, 2학년 12명, 1학년은 코로나로 선발하지 않음)
- 14개 교회 개척, 21명은 설교자, 26명은 교사와 모임인도자















# 3.SLTS(소그룹 지도자훈련학교)

- 현지 교회의 열악한 교육을 보충하고 교회를 섬길 소그룹 지도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임. 제자훈련의 형태로 진행중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성품 변화, 믿음의 성숙에 초점을 두며, 장차 교회 지도자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 2005년 9월 시작 ~ 현재
- 4명의 훈련교사(지부 선생님)
- 현재까지 11기, 57명의 학생들이 졸업, 직장과 캠퍼스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있으며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음 .
- 현재 6명의 학생들이 훈련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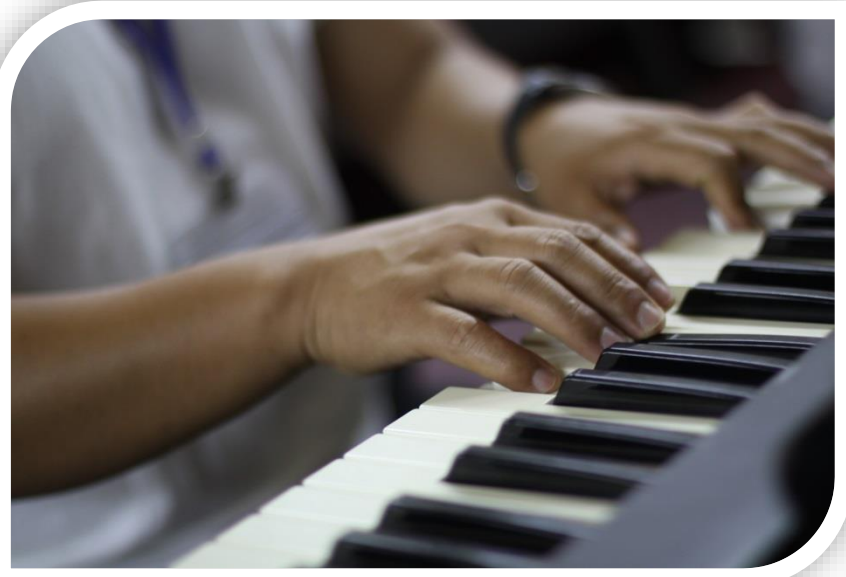




## 4.예배섬김이학교

- 아무런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와 소수민족교회를 돕고자 1년에 한 번 모여 1주일 동안 집중해서 반주자훈련을 받도록 하는 훈련학교 임.
- 예배 이론, 반주 이론, 찬양팀 운영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는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등의 악기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며, 저녁마다 부흥찬양 집회와, 기도회를 실습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함.
- 2008년 7월 시작 ~ 현재
- 3가정 동역
- 현재 12회 훈련 마침. 2019년까지 약 400여명 수료함
- 현재 코로나로 비대면(온라인)으로 훈련













# 5.MARANATHA 경배와 찬양

-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을 활성화시켜 청년을 깨우고 풍성한 예배와 자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경.찬 모임이 진행 중에 있음.
- 매주 목요일마다 준비와 연습 모임을 통해 현지인 스텝들이 세워지고 다른 도시로 경.찬모임이 점점 세워져 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경배와 찬양곡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음.
- 2010년 9월 시작 ~ 현재
- 3가정 동역
- 현재 매월 1회 하노이와 하노이 근교지역 교회에서 정기 경찬 집회와 매년 여름 1회 1주일 동안 VISTA(베트남 청소년수련회) 찬양인도와 스텝으로 섬기고 있음



















## 6. VISION HOUSE 학사

- 시골에서 하노이로 공부하러 올라온 가난한 학생들과 지방 산속과 시골에서 사역하는 가난한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신앙 학사 공동체.
- 학사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숙하고 이 사회 각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이 땅 복음화를 위해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 가게함.
- 2010년 9월 시작 ~ 현재
- 지부공동사역
- 현재까지 30명의 남녀 학생들이 학사에서 생활하였고 졸업해서 각자의 비전 따라 가정을 이루거나, 신학학업, 선교사, 유학생, 사업가, 직장인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음.
- 현재 8명의 여학생 지체들이 공동체 생활과 훈련에 임하고 있음.













# 7. ELLEV HOUSE 학사

- '하나님의 마음'의 의미를 가진 '엘레브 하우스'는 제자훈련을 통한 공동체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신앙훈련과 복음전도를 위한 학사 공동체이다.
- 처음 신학과 리더십 훈련을 마친 3명의 지체들을 통하여 2명씩 제자를 양육토록하여 학사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제자훈련과 생활훈련을 통해 재생산과 전도를 통한 훈련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작했지만, 주인과 주변 이웃의 방해와 신고로 현재는 잠시 중단된 공동체다.
- 2017년 3월 시작 ~ 현재 휴식기
- 3가정이 함께 협력



## 8. '실만한 물가' 카페 가정교회

- 하노이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교회가 없는 T마을에 2010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이후 안전한 예배를 위해 '실만한 물가'카페를 시작하여 예배모임과 지역 복음 전도를 위한 가정교회로 세워짐.
- 최근까지 공안의 방해와 주변의 방해 때문에 3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사역자 T를 통하여 주말에 소그룹 예배와 성경공부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
- 사역자 T는 현재 하노이 한 회사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며 활발하게 회사 복음전도에도 힘쓰고 있음.
- 2010년 7월 시작 ~ 현재







## 9. 하노이 문화대학교 한국어 강의 (한국어 학당, 국제관계학과)

- 비자문제 해결과 관계 전도를 위해 하노이 문화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매주 3회, 국제관계학과에서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한국어를 매주 1회 2반을 가르치고 있음.
- 코로나로 현재는 온라인 강의중.
- 2010년 2월부터 시작 ~ 현재







# 10.한,베 언어교육센터 V-EDU 유학원

- 학생들과 직원들의 관계전도를 위해 훈련중인 지체와 함께 한베 언어교육센터를 시작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유학원을 통해 한국으로 유학 및 노동자를 보내고 있음.
- 유학을 가거나 노동자로 한국에 가기 전까지 센터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사지체들과 신학생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 있음.
- 2014년 부터 시작 ~ 현재







# 11.BFWF(NGO 밝은미래복지재단)

-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까오방성에 교육 학습 환경개선 사업과 의료지원사업을 NGO 주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까오방성은 중국과 접해있고 대부분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고 90%이상이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산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임.
- 2017년 8월부터 시작 ~ 현재
- 담당업무: 사업 프로젝트 디렉터













Điện trường TH  
Bản Lũng -  
TH&THCS Trưng  
Vương





## 12.현지 교회, 사역자 협력

- 현지 교회와 교단 사역자들과 일군들과 교류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도전을 받고 동역과 협력을 통해 베트남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사역.



















• 여기 있는 이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뭐하러 가느냐고,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인 동료 선교사는 몇 일 전에 위험을 느껴  
성경을 집 한구석에서 모두 태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한 구석에 숨겨 놓은 성경책을  
태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모슬렘이 강한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한사람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드러내놓고 전하지는 못해도  
한 사람을 건지자고 말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공들였던 그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족과 그렇게 자주 헤어져야 되겠느냐고  
선교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옆 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몇 번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떨려도 태우지 못하는 이유도  
뒤통수를 맞고도 다시 그에게 웃음을 보여야 할 이유도  
그리움을 찬물로 닦아 내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흠어지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몇 번씩 찬물로 얼굴을 닦으시던 그 ‘사랑’  
배신한 우리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둠, 낯선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기 저기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